



이 계 조  
(부 화 협 회 장)

부화업자들이 한국 양계업에 기여한 공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지 또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지 몰라서 몹시 부담치고 있다. 71년초 본협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양계업에 얼마만큼을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바 우선 초생추 생산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사를 한 바 그 윤곽이 대략 드러났으며 그 자료는 우리나라 양계업의 전망을 점칠 수 있고 업자들 협조여하에 따라서는 전망 그 자체를 임의로 조작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즉 불경기라함은 수요에 비해 생산이 많다는 뜻이고 호경기라함은 생산이 수요를 못 따르다는 뜻인 바 이 두가지 모두가 부화업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모든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정변이나 사회혼란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그 수요가 격감하고 선거가 있다든지 운동씨즌, 소

# 종계전망

1. 1971년도 부화실적 검토
2. 1972년도의 초생추 소요량 추정
3. 부화협회의 시책

풍씨즌 등 경사가 겹쳤을 때 또는 모든 경기가 상승할때에는 예외의 경기라고 말할 수 있다.

## 1. 1971년도 부화실적 검토

본인이 여기서 말할려고 하는 것은 상술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업자가 구성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호경기 불경기에 원인이 되는 종계 및 부화기에 대해서 분석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며 또 71년도에 생산된 초생추수를 분석 검토한다면 72년의 시장동향과 가야할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보아서 우선 71년도 조사한 자료부터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부화기의 능력

부화기대수 : 1,190대  
입란능력 : 15,072,000계

### 나. 71년도 생산된 초생추수

산란계 1. 도입계 : 11,000,000  
2. 국산계 : 7,198,000수  
계 : 18,198,000수

육용계 1. 전용계 : 12,037,000수  
 2. 국산계 : 35,433,800수  
 계 : 47,470,800수

단 산란계수는 암병아리만 계산했으며 10월, 11월, 12월은 추정치이고 조사누락을 참작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위의 수보다 산란계 약 10~15%, 육용계 약 20~25%는 계산해야 되지만 이것은 생산과잉으로 보고 72년도 종계 산출근거에서는 빼고 기술하고자 한다.

다. 종계수

(70년 수입한 P.S.와 71년초의 것도 영향을 주나 편의상 70년도에 수입한 종계만 계산함).

산란계 “70”도입종계 199,475수  
 G.P.S에서 생산수 약 30,000수  
 국산종계 약 179,900수  
 계 409,375수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며

육용계 “70”도입종계 226,615수  
 G.P.S에서 생산된 수 약 20,000수  
 국산육용계 약 300,000수  
 계 246,615수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틀어져서 71년도 부화경기부터 분석을 한다면 전반기 산란계의 경우 그렇게 나쁜 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좋은 해는 아니었다고 본다. 생산가 이하의 출혈경쟁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후반기의 경우는 전반기보다도 나쁜 형태에 놓여 있는 것이며 육용계의 경우는 1월부터 10월중순까지 비교적 순탄한 경기가 지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10월 하순부터는 최악의 환경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채란업자들의 경기는 71년 년중을 통해 전반기에 1개월 후반기에 1개월정도가, 무난했고 그외는 비교적 좋지않은 경기속에서 업을 유지했으며 특히 10월하순부터는 육계시세 하락으로 폐계처분이 되지않아 현상유지가 불가능한 계군 조차 가지고 먹이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놓여 불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거기서 생산되는 알은 시장난가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생산과잉에다 경기불황, 불실경영등 말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부로일러 사육의 경우는 1월부터 9월말까지는 비교적 좋은 시세를 유지해 준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경영을 해왔으나, 10월부터 하락하는 시세에다 출하까지 한산하여 90일이상 사육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전반기에 다소 흑자를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대다수의 부로일러사육업자도 좋은 경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71년도 부화업자와 사육업자 경우, 그 어느 것도 신통치 않았다고 보아서 궁극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였나를 생각해 볼 때 산란계의 경우 부화업자들의 지나친 썬서비스? (가격하락, 장기 외상등) 위주가 그 원인이고 부로일러의 경우 년중 소비량에 비추어 10월초순부터는 자연 감소되는 계절인데도 8월 생산량 3,950,046수에 비해 9월생산량 4,260,161수는 7월이전 수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과잉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줄어야 될 시기에 늘었다는 것이 부화업자나 부로일러업자 공히 주목할 만한 일이며 6월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어도 더 줄였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업자들이 계속되는 불경기속에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오늘 호경기라해도 부로일러의 경우 2~3개월 이내에 불경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고 산란계의 경우 6~7개월을 넘길 수 없는 악순환속에서 하지않으면 안될 이유는 근본적으로 과잉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화기의 과잉으로 본다. 년중을 통해 71년도와 같은 경우 8,000만수 정도의 부화를 하기 위하여는 입란능력 6,000,000개~7,000,000개 입란능력이면 충분한테 비해 현재 보유능력은 1,500만개의 입란능력과 조사에서 누락된 것까지 추정한다면 1,600만개~1,700만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결국 현재 보유수는 필요한 량의 250%~300% 더 많은 부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의 36%~46%만 가동해야 적당하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

증계가 있어야 부화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호경기가 온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부화는 하게 마련이므로 현재의 축산법으로는 이를 막을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현재의 부화협회능력으로도 아무런 방법이 생겨나질 않아 이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비장한 노력과 인내와 각오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될 시기라고 본다.

과거에는 우리가 내년에는 경기가 어떻겠느냐 또 후반기에는 어떻겠느냐 하고 주먹구구식의 질문을 쳐왔으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소리였느냐 하는 것을 나 자신 느끼게 하여 주었으며, 이제 자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어떤 경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안전한 수준을 설정하고 행동으로 이행하는 길만이 피차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이라 함은 생산해야 할 마리수를 사전에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적절한 방법이라 함은 생산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전술한 바와 같은 통계를 조사한 것과 같이 이 이상의 역경을 겪어야만 적절한 방법이 가능하리라 믿어지지만 이런 상태로는 다 망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진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어 이것을 전제로한 72년도 부화협회 사업목표와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 2. 1972년도 초생추 소요량 추정

본협회에서는 71년 11월 16일 학계, 증계별협 회책임자, 각도지부장 및 부화협회 이사로 구성된 생산조절 위원회를 소집한 바있다. 우선 71년도 산란계 코머살 생산수준을 71년도 생산수준에서 조사누락분 20%를 생산과잉으로 보고 실제 조사된 수를 생산해야할 수로 설정하였다.

### 가. 증계 소요량

- 산란계 ① 수입산란계 : 180,000수  
 ② GPS에서 생산되는 PS : 93,000수

- ③ 국산계 : 91,000수  
 계 : 364,000수

- 육용계 ① 수입육계 : 200,000수  
 ② GPS에서 생산된 PS : 163,000수  
 ③ 국산육계 : 164,000수  
 계 : 527,000수

단, 국산육계의 수요를 전용계로 40%가량 전 환계산하게된 것은 71년 부로일터업자중 전용육 계를 구하지 못해 국산육계를 키운 경우와, 또한 시장요구율도 전용계 요구율이 높아졌으며 국제 시장에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40%정도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이 일단 필요한 수를 설정하고 증계의 배경은 생산조절 위원회에서 재론되어야 할 줄로 생각되나, 2~3년간의 실적 또는 증계장 시설및 부화능력등 여러가지가 참작되리라 믿으며 학계에서 2명, 가금협회추천 2명, 정부에서 2명, 부화업자 4명으로 구성하는 도입증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진지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서 보다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구상도 하고 있으므로 불평없이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된다.

### 나. 수입시기 선정

- 산란계 1~3월 40%  
 4~6월 40%  
 7~9월 10%  
 10~12월 10%  
 육용계 1~3월 15%  
 4~6월 25%  
 7~9월 40%  
 10~12월 20%

분산수입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편중됨이 없이 적절한 양을 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71년도 불황으로 인하여 증계수입에 있어서 상상 이외로 위축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 3. 협회의 시책

71년도 분석에도 밝힌 바와 같이 문제는 증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화기에 있는 것이다. 경

□ 부화 및 종계전망 □

기가 다소 호전된다면 또 많은 양을 생산하므로 불황은 곧 뒤를 따르게 마련이므로 마음놓고 이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잉상태에 있는 부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동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본 협회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검토한 결과 생산 조절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72년도에는 1~4월까지 필요로 하는 수량을 설정하고 그 수에 도달되었을 때에는 생산을 중지하며 11월, 12월, 1월에 산란하는 닭을 집중적으로 숫자를 줄여 계절에 따라 하락하는 계란시세를 어느 정도 카바하고 8~11월까지 수량을 설정하여 설정한 수를 상회할 때에는 다시 제한을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있으며 육계의 경우는 단기적인 제한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나 상술한 제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르는데

- 문제점 : ① 협회 취지에 따르지 않는 행위  
(즉 몰래 부화하는 경우)  
② 불량추의 성행  
③ 비회원의 비협조

등이 있는 바 문제점 ①은 업자간 교환감시를 해서 방지할 수 있으며 ②는 회원표찰을 부착시켜 등록된 부화장에 표시를 해주고 부화능력, 종계명, 종계 수량등을 표시할 것이므로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면 생각에 없는 병아리를 사지는 않을 것이며, 문제점 ③은 대부분 종계가 없는 부화장이고 미등록 부화장이므로 당국이 강력조치를 취하겠으나 이 기간중 병아리를 키우지 않도록 일반 사양가도 협조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여하튼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부화 협회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주어야 하며 여러분과 같이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러는 바이다.

전술한 모든 방법은 물론 일시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나갔으면 얼마나 좋는지 모르나 역시 자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규칙을 잘 지키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2년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는 부화기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협회에 일련번호로 등록을 시키자는 사업이다.

이 조사는 장치 양제진흥법을 제정한다든가 또는 생산조절을 한다든가 또는 정확하게 부화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며 종계장 시설기준, 부화장시설기준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진다면 다행한 일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협회 생산조절 위원회에 제정하는 기준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규탄받지 않고 칭찬받는 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72년도 전망은 오는대로 당황게 아니라 후반기부터 적절하고 안정된 경기가 찾아오도록 그 전망을 만들려 하는 것이 본 협회 취지이므로 이 사업에 성공하면 부화업자, 채란업자, 육계업자 할것없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서 생업을 영위하게될 것이고 실패하면 또 내달에는 어떻겠느냐 또 내년에도 어떻겠느냐 하는 식의 접이나 치고 살아야 하는 수 밖에 없을 줄 안다. 재수가 좋으면 밥을 먹을 것이고 잘 안되면 재수가 없어서하고 한탄이나하는 그러한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재수좋은 72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나같이 노력하여 웃음으로 가득찬 72년이 되기 바랍니다.

※ 바로 잡습니다.

착오 게재된 아래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1. 1971년 12월호 70페이지의 청량리 가축약품 센터의 전화번호 :  
99~2538을 97~2538로.
2. 1971년 10월호 94페이지의 외국계 도입현황 중 70년도분 도입종류 및 양에서 코로니알 2,880수가 누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삽입합니다.  
코로니알 우 2,300수, 송 580수,  
계 2,880수